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혁신도시 클러스터 분양 '순항중'

올 전체면적 86.1%가 완료  
분양계획 확정 국민연금 등  
포함시 96%가 완료된 상태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인근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전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완판이 눈앞에 다가왔다. 확정계약까지 포함해 96%인 22만722㎡가량이 팔린 것이다. 클러스터 부지는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기관·연구소 등이 지리적으로 집중해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혁신도시 내에 조성된 용지다. 전북도는 "2019년 12월말 기준 65.1%(14만9,456㎡)였던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가 지난 3일 국립암주분화연구소에서 1개 필지(클러스터6)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올해 전체면적(22만9,678㎡)의 86.1%인 19만7,717㎡가 분양 완료됐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아직 분양계약 체결은 되지 않았으나, 분양계획이 확정된 출판문

화산업진흥원(클러스터7), 국민연금공단(클러스터12) 등 2개 필지 2만3,005㎡를 포함하면, 전체면적의 96% 정도가 사실상 분양이 완료된 상태다. 한편, 전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가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 및 공간정보연구원 등의 입주로 신지역성장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국소방안전원 전북지부(클3-1)는

면적 2,370㎡(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강의실과 응급실습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 소방 및 안전관리기술 등의 교육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착공한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도 연내에 공사를 완료해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IT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공간정보에 대한

정책과 기술개발, 제도 수립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전북지역 내 원활한 전력공급과 안정화를 위한 한전KDN 전북지사는 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2023년 착공할 예정이다. 국립암주분화연구소는 전북지역 내 문화유적조사연구와 과학적 보존처리 등의 문화유산 연구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전북문화재연구원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후 2023년 착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출판산업의 새로운 메카 조성을 위해 출판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병성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현재 전북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는 거의 분양이 완료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면서 "오는 5월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 연구소기업, 디지털융합센터 등이 입주하고, 국제금융센터 등 금융타운까지 조성되면, 전북혁신도시가 전북발전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자 명품 혁신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성 기자

## '시민햇빛발전소 4호' 조성

전주시 송천동 어울림국민체육센터서

시민들이 직접 전기를 생산해 사용하는 '시민햇빛발전소'가 전주 효자배수지에 이어 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추가로 조성됐다. 전주시와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사장 유혜숙)은 4일 송천동 전주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서 4호 전주시민햇빛발전소 준공기념 현판식을 가졌다.



시민햇빛발전소는 연간 11만5895kWh의 전력을 생산해 연간 약 50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령급 잣나무 1만848그루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으로, 잣나무 숲 8ha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2번째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인 4호 전주시민햇빛발전소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주시민 230여 명, 약 1억3000만 원의 출자로 건립됐다. 1호 발전소는 지난 2019년 효자배수지에 지어졌으며, 2·3호 발전소는 호성동 천마배수지에 다음달 완공 예정이다. 88.2kW 규모로 건립된 이번 전주

시는 시민햇빛발전소를 통해 공간 에너지 소비자였던 시민들이 스스로 친환경에너지 생산자가 되고, 환경오염도 줄이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앞으로도 전주시 곳곳에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가 확대되고 기후위기를 해결하고자 앞장서는 전주시민들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도내 최고 중등교원 양성 산실 '재입증'

전북대, 임용시험서 합격자 177명 배출  
사범대학 졸업자 113명 입학정원의 52.6%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2021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177명(공립 161명, 사립 16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전북지역 최고의 중등교원 양성의 산실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중 전북대 사범대학 졸업자는 113명으로, 입학정원 215명의 52.6%에 달한다. 이는 전북대 사범대학 입학정원이 다른 거점국립대보다 적다는 점과 도내 중등학교 교사 선발인원이 다른 시·도보다 많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목할 만한 성과다. 비(非)사범대학 교직 이수자 및 교육대학원 졸업자 64명도 이번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합격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타 시·도 지역, 사립학교, 비(非)사범대학에서 합격자가 추가 확인되면 그 숫자는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다. 또한 전북대 사범대는 임용시험뿐 아니라 이의 공무원 시험에서도 6명이 합격하는 성과도 올렸다. 특히 사범대학 개설학과 기준으로 전북지역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선발된 인원 176명 중 45.5%에 해당하는 80명이 전북대에서 배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같이 전북대가 매년 중등 임용시험에서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수한 교육체계를 기반으로 한 사범대학 교수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학생지도와 예비교사로서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한 학생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전북대는 사범대학 차원의 임용시험 준비반인 '학이사제' 및 각 학과별 맞춤형 고시반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현장 및 외부전문가 특강 제공, 교육학 및 전공시험 준비 지원, 2차



화려하게 핀 덕유산 너도바람꽃

봄을 알리는 야생화인 너도바람꽃이 덕유산에서 화려한 자태를 뽐내며 만개했다. (사진=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시험에 대비한 수업시연 피드백 제공 및 심층면접 시뮬레이션 실시 등 다양한 맞춤형 고시반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현장 및 외부전문가 특강 제공, 교육학 및 전공시험 준비 지원, 2차

조성숙 사범대학장은 "사범대학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교원양성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교육부의 예비교원의 원격교육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인 '미래교육센터'를 구축·운영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예비교사들의 미래교육 역량강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전주 전통한지 사회교과서 올해 완주 학생들에게도 보급

전주 전통한지로 만들어진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가 전주와 임실에 이어 올해는 완주 지역 학생들에게도 보급된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그동안 전주 전통 한지로 활용한 사회 교과서를 전주에만 보급해 왔으나 지난해부터 임실군을 시작으로 올해는 완주군 초등학교 교까지 확대, 보급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는 전주 지역 1·2학기 과정 전체 1만5,000부를 비롯해 임실 300부, 완주 관내 30개 초등학교 48개 학급, 1,000여명의 학생에게 전주 한지장이 손수 제작한 전통 한지와 색 한지가 삽입된 지역 사회 교과서가 보급됐다. 전주 전통한지는 지도와 편지 형태로 교과서에 각각 삽입되며, 완주지역에 보급되는 교과서 '우리고장 완주' 편에 편지(210×270mm) 형태로 삽입됐다.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새로운 교육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전통 한지 활용형 콘텐츠'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원주=이종복 기자

토 · 일요일 신문 쉽니다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